다시 달아오른 김도영…MVP 시즌보다 빠르다

KIA 김도영이 지난 9일 대전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한화와의 원정경기에서 3회말 스리런 홈런을 터뜨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6월 7경기 5홈런…홈런 단독 선두

'61경기 19홈런' 2024 시즌보다 3개 '↑'…주자 놓고 10개 '알짜배기'
홈에서 11개 터뜨려…주말 두산·주중 LG 안방 6연전 '관전 포인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간판스타' 김도영의 홈런 페이스가 예사롭지 않다.

2024년 MVP 시즌보다 빠르다. 최근 방망이는 더욱 뜨겁다.

김도영은 지난 9일 대전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4타수 2안타 3타점 1홈런의 맹타를 휘둘렀다.

그의 한 방을 앞세운 KIA는 6-4로 신승했다.

올 시즌 성적은 이날 기준 61경기 타율 0.283, 19홈런, 52타점, OPS 0.973이다. 홈런 부문 단독 1위다. 2위 오스틴(LG)과는 2개 차다.

눈에 띄는 건 홈런 생산 속도다.

김도영은 2024년 141경기에서 타율 0.347, 189안타, 38홈런, 109타점, 40도루를 기록하며 정규시즌 MVP에 올랐다.

당시 61경기를 치른 시점의 홈런은 16개였다. 전반기에는 모두 23개의 아치를 그렸다.

같은 경기 수 기준으로 올해는 홈런 3개를 더 때려냈다. 전반기 잔여 경기는 26경기다. 산술적으로 2024시즌 전반기 기록 경신은 충분히 가능하다.

월별 홈런 추이도 흥미롭다.

3월 1홈런으로 시즌을 시작한 김도영은 4월 9개의 홈런을 몰아쳤다. 5월에는 4홈런에 그치며 잠시 숨을 골랐다.

하지만 6월 들어 증가세가 가파르다.

7경기에서 홈런 5개를 쏠어 담았고, 타율 0.407(27타수 11안타)을 기록했다. 타점은 9개다.

최근 2경기 연속 홈런도 터뜨렸다. 특히 지난 7일 삼성전에서는 5타수 4안타 2홈런 3타점을 올렸다.

장타의 질도 돋보인다.

김도영은 올 시즌 29개의 장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19개(65.5%)가 홈런이다. 장타 3개 가운데 2개가 담장을 넘어갔다.

단순히 많이 넘긴 것만은 아니다. 절반이 넘는 10개의 홈런이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해결 능력까지 갖췄다는 의미다.

통산 기록을 돌아봐도 존재감은 뚜렷하다.

2022년 3홈런으로 출발한 그는 2023년 7홈런으로 가능성을 보였다. 2024년에는 38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최고 타자로 올라섰다.

지난해에는 부상으로 30경기 출전에 그치며 7홈런을 기록했다.

하지만 건강을 되찾은 올해 다시 리그 중심에 섰다.

KIA는 이번 주말 두산전과 다음 주 LG전을 포함해 홈 6연전을 치른다.

김도영의 19개 홈런 가운데 11개(57.9%)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터졌다.

팀 승리만큼이나 그의 홈런 퍼레이드도 또 다른 볼거리다.

김도영이 또 한 번 자신의 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주홍철 기자

첫판 체코 잡아야 '꽃길'로 간다

조1, 2로 32강 진출하면 무난·조 3위면 '가시밭길'
손흥민·황희찬·이강인 '삼각편대' 가동 공격 활로
스리백 수비 '장신군단' 차단…맞춤형 전술 승부수

2년을 달려온 홍명보호가 드디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운명의 첫판을 치른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유럽의 복병 체코를 상대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갖는다.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과도 한 조인 한국은 2022년 카타르 대회에 이은 두 대회 연속 원정 16강 진출을 겨냥한다.

한국 축구는 2002년 한일 대회에서 4강 신화를 썼으나, 원정 월드컵에서의 최고 성적은 2010년 남아공 대회와 카타르 대회의 16강이다.

이번 대회부터 개최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나 16강에 닿으려면 더 먼 길을 가야 한다.

3경기를 치르는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곧바로 16강에 오르는 게 아니라, 32강전부터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조 3위까지도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어 조별리그 경쟁의 강도가 약해졌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첫 경기 승리가 중요한 건 예전 대회와 같다.

만약 3위로 32강에 오르면 E조 1위나 G조 1위를 상대해야 한다. E조에는 전통의 우승 후보 독일, G조엔 강호 벨기에가 버티고 있다.

반면, 조 1, 2위로 32강에 오른다면 훨씬 무난한 대진을 받는다. 1위를 하면 다른 조 3위, 2위로 진출하면 B조 2위를 상대한다.

B조에는 캐나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카타르, 스위스가 있다. 뚜렷한 강팀이 없는 조다.

조별리그 1·2위가 '꽃길'이라면 3위는 '가시밭길'인 셈이다.

홍 감독이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1차 목표로 '좋은 위치에서 32강 진출'을 내세운 이유다.

첫판에서 승리해야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월드컵에서 첫 경기는 절대적인 분수령이며, 그간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첫 경기에서 지고도 16강에 오른 적은 없다.

체코는 20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 복병이다. 키 190㎝ 이상 선수가 무려 10명이나 되는 체코는 세트피스나 크로스를 활용한 '고공 공격'에 강한 모습을 보인다. '철기둥' 김민재(뮌헨)를 비롯한 홍명보호 스리백 수비진이 이를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도 관건이다.

홍명보호 공격진에서는 '불세출의 골잡이' 손흥민(LAFC)이 선봉에 서고, 황희찬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좌우 측면 공격을 맡을 거로 보인다.

안정환, 박지성과 나란히 월드컵 무대에서 3골을 넣은 손흥민은 이번 대회에서 득점하면 한국인 월드컵 통산 득점 단독 1위에 오른다.

고지대 적응은 변수다. 해발 약 1천570m의 고지대인 과달라하라는 기압이 낮아 공이 빠르게 날아가고 체력 소모가 크다.

홍명보호는 조 추첨 직후부터 고지대 적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준비해왔다.

지난달 18일 일찌감치 한국을 떠나 고지대인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사전캠프를 차리고 보름 넘게 적응훈련을 하고서 결전을 엿새 앞둔 지난 6일 과달라하라에 입성했다.

날씨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경기가 열리는 현지시간 11일 오후 7시 1.5㎜의 비가 내리는 것으로 예보됐다. 젖은 그라운드에서는 지면과 공의 마찰이 줄어들어 패스 속도가 빨라진다. /연합뉴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지난 15일 제주 전국체전 광주대표선발전이 열린 광주시체육회관 레슬링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한 후 선전을 기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제주 전국체전 참가 11개 종목 광주대표 선발전 열전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현장 방문 선수단 격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오는 10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광주 대표 선발전 현장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광주 대표 선발전은 지난 9일 복싱을 시작으로 레슬링, 태권도, 탁구, 합기도 등 11개 종목에서 다음 달까지 진행된다.

선발전 결과 복싱은 최규현(남부대) 등 24명, 레슬링은 국가대표 박서영(남구청), 김무찬(조선대) 등 58명이 광주 대표로 확정돼 본격적인 체전 준비에 돌입했다.

오는 24일에는 펜싱, 26일에는 유도 종목 예선경기가 국민생활관 펜싱·유도경기장에서 각각 펼쳐지는 등 7월까지 46개 종목 약 1천100여 명의 광주 대표선수단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발될 예정이다.

광주시체육회는 선발된 광주 대표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계 강화 훈련비를 지원하고 종목단체 및 교육청과 협력해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체계적인 대표선수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갑수 체육회장은 "광주 대표를 선발하기 위한 공정한 경쟁이 서로의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지원하고 가까운 곳에서 힘이 돼주는 든든한 응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광주시청, 실업양궁연맹회장기 金1·銀2

이가영 70m '金'·여자 단체전 '銀'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 양궁대회에서 단체전 은메달을 합작한 광주시청 선수단. 〈광주시청 양궁팀 제공〉

광주시청 여자양궁팀이 제37회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 양궁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수확했다.

광주시청 여자양궁팀은 10일 충북 옥천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인천시청에 세트스코어 4대5로 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세연, 나민지, 이가영, 정지서가 팀을 이룬 광주시청은 16강전에서 창원시청을 5대1, 8강에서 광주은행 텐텐양궁단을 6대0, 4강에서 예천군청을 5대4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가영은 앞서 열린 거리별 경기 70m에서 338점을 쏴 최미선(광주은행 텐텐양궁단), 임시현(현대모비스), 홍수남(인천시청), 방현주(현대모비스)와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컴파운드에 출전한 광주시청 권나래는 개인전 은메달을 차지했다.

순천시청 유시현은 여자 개인전 정상에 등극했다.

유시현은 64강에서 전완서(여주시청)을 7대1, 32강에서 심다정(예천군청)을 6대0, 16강에서 방현주(현대모비스)를 6대4, 8강에서 장민희(인천시청)를 7대3, 4강에서 전인아(전북도청)를 6대2로 제압하며 결승에 올랐다.

유시현은 조민서(부산도시공사)와의 마지막 대결에서 6대0 완승을 거두며 여자 실업양궁 1인자에 등극했다. /박희중 기자